

<드론작전사령부 방문 불허, 외환유치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 국방부는 어제(7일) 평양 침투 무인기 의혹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단장: 정동영)의 드론작전사령부 방문 요청을 불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북풍몰이 목적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사당국은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풍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투입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 측은 국회의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요구한 것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을 교묘한 방식으로 방해해왔다.
- 이에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자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어제(7일) 드론작전사령부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본 현장방문 요청이 「부대관리훈령」상 정치인 부대방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 공표 행위로 비취질 수 있고, 또 이미 드론작전사령부가 국회 자료요구에 답변을 제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방문 요청을 불승인했다.
-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방문 목적은 ‘평양 무인기 침투’의 외환유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대관리훈령」 ‘제141조 2항 3. 군 관련 공적업무 수행을 위

한 방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가 국회 자료요구에 답변을 제출하고 있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했듯 새빨간 거짓말이다.

-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아래와 같이 평양 무인기 침투 4대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드론작전사령부가 그동안 어떻게 국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는지 공개한다.
- 첫째, 윤석열 대통령 직속 비선라인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봄 국가안보실 고위공직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고 하며, 여름에는 드론작전사령관이 용산을 방문해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했다고도 한다. 드론작전사령부가 공식 명령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용산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는 국가안보실 인사의 사령부 방문 여부, 드론작전사령관의 용산 방문 여부와 같은 국회의 가장 간단한 사실관계 요청에 일주일 이상 응답하지 않고 있다.
- 둘째, 이미 신뢰성 잃은 의심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총 4대가 파손됐다고 제출하더니, 12월 11일에는 그 이외에도 수 대가 더 파손됐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 일부가 그 사이에 파손되거나 유실됐느냐는 단순한 질문에도 “조사 중이다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 셋째, 드론작전사령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2024년 10월 상황일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자료제출 회피 행태는 정보사령부가 12월 3일 등의 상황일지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상황일지에 평양 침투 드론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은 적으나, 이는 명백한 자료제출 회피가 아닐 수 없다.

○ 넷째, 드론작전사령부에 뼈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었는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보유한 3D 프린터를 활용해 뼈라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탑재해 평양에 보냈다. 조사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전자IT기기 목록을 요청했으나, 사령부 측은 엉뚱하게도 “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 장비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세부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역시 명백한 자료제출 회피다.

○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의 드론작전사령부 방문은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군 관련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방문’으로, 국방부의 방문 불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드론작전사령부가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했어도 방문의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

※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정동영 단장, 박선원·부승찬 부단장, 김병기·위성락·이광희·이기현·조인철·채현일 위원, 강태원·김정룡·박견목·서남열·이상기·이종화 자문위원

※ 문의 : 부승찬의원실 02-784-9130

2025.1.8.(수)

**더불어
민주당**